2022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6)

- 일시 : 2022년 4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한소망교회
-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장애인소위원회

2022년 장애인주일 연합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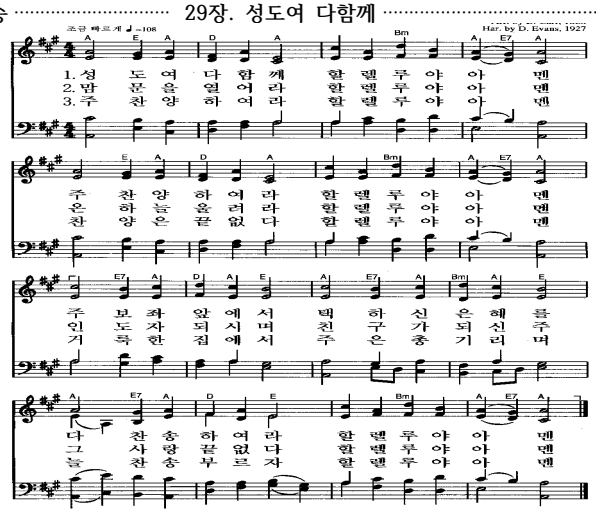
인도 : 신복현 목사(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 수어통역 : 이영아 전도사(잠실중앙교회)

초대의 말씀 ····· **류영모 목사**
(한교총 대표회장, 한소망교회)

예배로의 부름 ····· **다함께**

인도자 :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시어 묶인 사람들에게는 해방을 알려주고 눈먼 사람들은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누가복음 4:18~19)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회 중 :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한 가족임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인도자 : 하나님은 영이시니,
회 중 :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다함께 :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 하나되게 하소서.

여는찬송 ····· **29장. 성도여 다함께** ····· **다함께**



기 도 ····· **황현주 목사**
(기장 여신도회전국연합회 교육원장)

하늘말씀 읽기 …… **요 5:10, 행 3:1~10** …… **인도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요 5:10)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행 3:1~10)

특별찬양 …… **한소망교회 리조이스 워십댄스팀**

설　　교 …… **"당연한 줄 알았지요. 그러나"** …… **이계윤 목사**
(NCCK 장애인소위원회)

증　　언 …… **박홍화 집사**
(미래를 사는 교회)

찬　　양 …… "마시디(주를 찬양)", "투마미나(보내소서)" …… **다함께**

마시티(선창) 아멘지 야쿠두미사 마시티(선창) 아멘지 야쿠두미사
아멘바보 아멘바보 아멘지 야쿠두미사
마시티(선창) 아멘 우리 주를 찬양해 마시티(선창) 아멘 우리 주를 찬양해
아멘 영광 아멘 영광 아멘 우리 주를 찬양해

투마미나(선창) 투마미나 투마미나 투마미나 소만다(2번 반복)
투마미나(선창) 보내소서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소서(2번 반복)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로부터 존중을 받으시며,
차별이 없는 하나님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장애인, 비장애인, 우리 모두에게 일용할 양식을 고르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이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차별하는 어떠한 시험에도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하늘의 뜻을 외면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위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 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결단과 다짐 …… **다함께**

인도자 :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같은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갈 것을 다짐하며 함께 결단합시다.

회　중 : (한 목소리로 아래 내용을 읽으며 결단합니다.)

하나, 성경공부, 친교,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장애를 가진 교우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도록 교회는 배려해야 합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교회 봉사 또는 행사에서 배제시켜서는 안 되며,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안에서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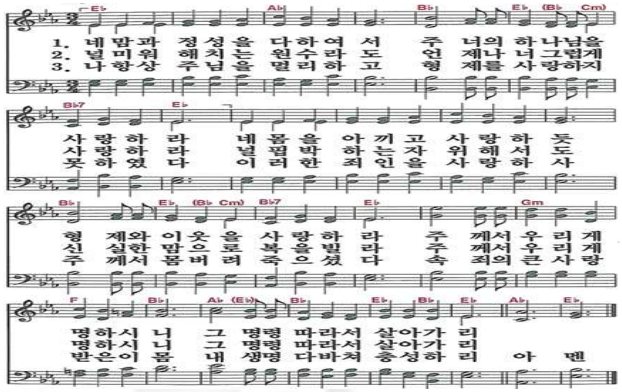
둘, 장애 교우들도 교회 안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 교우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 시각, 청각 장애인들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시각 장애 교우를 위한 점자 찬송가와 성경, 청각 장애 교우를 위한 수화 설교 등 교회는 장애 교우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넷, 교회 안에 있는 장애 교우들에게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교회가 나눔과 섬김의 실천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습니다.

다섯,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요, 같은 동역자임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섬기고 나누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되겠습니다.

결단 찬송 ……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 **다함께**



파송의 말씀 ..... 다같이

인도자 :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 주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 평화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회 중 :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아멘**

축복 기도 ..... 황필규 목사
(NCCK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인 사 ..... 이홍정 목사
(NCCK 총무)

1. 장애인주일 연합예배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배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한소망교회 류영모 목사님과 교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이 땅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며, 사랑과 나눔, 섬김과 배려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늘 관심 가져 주시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 애 인 소 위 원 회